“지자체 홍보 위해서라면…” 춤추는 공무원들

‘재미없는 공공기관 홍보영상’·‘노잼 광주’ 깨려 자발적 참여
시책 등 소개하며 동네스타 등극…시민들 “귀엽고 재미있다”

광주 지자체 공무원들이 딱딱한 공무원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 몸을 사리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별다른 인센티브를 받지도 않으면서 20대부터 50대까지, 춤부터 연기까지 쏟아내며 자발적으로 홍보 영상을 찍고 있어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청 홍보미디어팀 소속 최태건(33) 주무관은 올해로 공무원 1년차밖에 되지 않았지만 광산구 내 인지도는 10년차 못지 않다.

최 주무관은 ‘홍보인간’이란 별명에 걸맞게 ‘널리 광산을 이롭게 하라’는 제목을 달고 수 십개의 광산구 유튜브·인스타그램 영상에서 주연 배우 역할을 도맡고 있다.

영상 속 최 주무관은 전형적인 공무원의 모습과 사뭇 다르다. 빨간 트레이닝 복을 입고 뒤집어 쓴 비니(모자) 사이로는 머리카락이 튀어나와 있으며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면서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영상에 재밌고 귀엽다는 댓글을 쏟아내며 환호했다.

지난달 8일 올라온 최 주무관이 카네이션을 양손에 들고 케이팝(k-pop) 댄스를 추는 ‘가정의 달에 결재받는 법’ 영상은 조회수 5만여회(유튜브+인스타그램)를 기록했다. 같은 달 24일 황룡친수공원 유채꽃을 소개하는 내용의 ‘아디아디 챌린지’ 영상 역시 7000회가 넘는 조회수를 보였다.

최 주무관은 “평소 수줍음이 많고 구강구조에 콤플렉스가 있어 영상에 모습을 드러내기가 정말 쉽지 않았다”면서도 “공공기관 유튜브나 SNS는 재미가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출연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광주시청은 ‘나는 광무원이다’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다. SBS플러스·ENA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를 오마주한 것으로, 시청 내 MZ공무원 4명이 출연한다.

영상 속 열정맨 콘셉트의 ‘금남’역을 맡고 있는 한정현(31) 광주빛고을안전체험관 소방사는 광주 토박이다. 출생부터 어엿한 직장인이 되기 까지 광주를 떠나본 적 없는 한 소방사는 ‘노잼광주’ 타이틀에 늘 아쉬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 소방사는 “노잼도시 광주를 탈피하기 위해선 지자체를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식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공무원들이 틀을 깨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광주시가 보다 편하고, 자유로운 도시라는 인식을 갖게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북구청 전미희 주무관이 방송기자 콘셉트로 등장한 홍보영상(왼쪽), 박병규 광산구청장(사진 왼쪽)과 최태건 홍보미디어팀 주무관의 가정의날 맞이 홍보영상.
〈광주시 북구청·광산구청 유튜브 캡쳐〉

‘나는 광무원이다’ 영상은 15일 현재 2회까지 공개됐다. 출연진 소개 영상인 1회 영상도 조회수 1만회와 댓글 520여개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지난 9일 게시된 2회 영상은 리모델링을 마친 광주예술의전당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닷새만에 5000여명의 시청자를 끌어모았다.

광주시 북구청은 ‘방송기자’를 컨셉으로 시책 홍보에 나섰다. 북구의 경우 홍보팀 직원이 아닌 시책 담당 부서 주무관이 참여해 더욱 눈에 띈다.

영상에는 전민희(여·29)기획조정실 주무관이 출연해 ‘레전드 방송사고’를 콘셉트로 생방송 도중 실수를 연발하는 등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파크 골프를 직접 쳐 보겠다며 북구 파크골프장을 소개하고 폭설이 내린 겨울에는 직접 제설작업 현장에 나가 머리 위로 눈이 쌓인 모습을 연출했다.

전 주무관은 “정책은 공무원들의 노력이 더해져 만들어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을 느꼈다”며 “처음엔 출연을 망설이기도 했지만 홍보와 공무원 조직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상국(51) 광주 남구청 홍보실 영상촬영담당 경력관 역시 ‘남구 홍보맨’으로 유명하다.

‘남구 TV’ 유튜브에는 각각 1주, 2주에 한번씩 ‘한 주 브리핑’과 ‘이게 남구다!’ 영상이 업로드 되는데, 김 경력관은 영상을 위해 대본과 촬영, 편집까지 도맡으며 열정을 보이고 있다. 광주 지역 가뭄으로 단수 위기에 처했을 당시 남구청 앞에서 기우제를 지내며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노래에 맞춰 ‘비 내려온다’를 부르고 춤을 췄다. 김 경력관은 ‘꼰대 상사’ 역할을 맡아 1993년 제한급수 당시를 언급하며 ‘나 때는 말이야’ 상황극을 펼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자체 미디어의 변신에 남구 홍보실 관계자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경로가 많아졌다”며 “딱딱하고 옹고집적인 공무원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MZ, 간부급 공무원들까지 노래와 춤, 악기 연주, 연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자체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장애물 많은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나이 제한·법률·지침 ‘제각각’…장애인들 행정소송

나이제한 지침에 따라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광주지역 발달장애인이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광주시 광산구는 “광주지방법원이 연령 제한으로 인해 끊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A씨가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5일 밝혔다.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A씨는 주간보호센터에서 개인 맞춤형 미술활동 지원을 받아오다 나이제한으로 지원이 끊기자 광산구를 상대로 지난달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A씨가 만 65세에 접어든 올해 4월 지원을 중단했다.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나이 제한 부당성을 지적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라는 것이 광산구의 설명이다. 관련 본안소송은 다음달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광산구는 A씨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관련 지침이 없어 지난 7일 광주시에 의견검토를 요청했다. 광주시도 지난 9일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요구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결국 A씨는 현재 자부담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 관계자는 “예외적인 사례에 대해 구비로 지원하는 대안을 찾을 수도 있겠으나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해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낮기온 34도 본격 무더위

광주·전남 올 첫 폭염특보 가능성

주말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면서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금요일인 16일부터 기온이 차차 올라 주말에는 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올라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고 15일 예보했다.

16일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은 26~33도를 보이겠다. 주말인 17일 아침최저기온은 17~20도 사이에 분포하고 낮 최고기온은 27~34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이 서해의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어 맑은 날씨가 이어져 낮 최고기온이 계속 오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광주·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기온도 31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주말사이 무더위가 예보됨에 따라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 높다”면서 “반드시 장시간 외부 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혼자보다는 여럿이 하면서 서로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교육청, 학교 주차장 상시 개방 추진

7월께 서구 학교부터 개방키로

광주시교육청이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주차장 개방을 추진한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5개 구청과 협력을 바탕으로 나눔 주차장(공유사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학교에 권고해 설 명절에 주차장을 일시 개방한 사례는 있으나 상시 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광산구를 시작으로 5개 자치구와 교육진흥 TF를 구성했다.

나눔 주차장은 유휴시간대(야간·주말) 광주지역 학교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해 공유하는 사업이다. 주차장을 공유하는 학교는 구청으로부터 노후시설 개선, 수목 관리, 학생 놀이터 개선 등 학교에 필요한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청은 별도 주차장 조성비용을 들이지 않고 주차공간을 확충하게 된다.

주차장 개방 시간은 평일 오후 7시~다음 날 오전 7시 전후다. 등록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구청은 나눔주차장 조성 및 관리,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르면 7월께 서구부터 학교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제1시립요양병원·정신병원 노조 파업

임금제 변경과 해고조합원 복직 등을 두고 사측과 갈등을 빚던 광주 제1시립요양병원·정신병원 노조가 15일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97명 중 50여명이 참여했다. 노조측은 지난 2월 병원 위탁 운영을 맡게된 재단 측이 기존 호봉제를 연봉제로 개편하기로 해 반발하고 나섰다.

재단측은 병원수익 80%에 달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연봉제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양측의 갈등은 이어져왔다.

이 과정에서 재단측이 병원 내부에서 팻말 시위를 벌인 노조원 6명에 대해 해고를 통보하고 형사고소까지 하게 되면서 갈등은 격화했고, 지방노동위원회 쟁의 조정마저 중단됐다.

노조측은 요구가 받아 들여질 때 까지 병원 1층 로비에서 무기한 총파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자 입원환자 30여명은 이날 인근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다. /김다인 기자 kdi@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